

건강 칼럼

신경증의 히스테리와 증상의 원인

한참 쓰어던 단어 중의 하나는 히스테리증세이다. 매우 신경질적이거나 감정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 히스테리증세라고도 한다. 정신질환의 일종이었던 것 같다. 주위에서 히스테리가 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히스테리는 신경증의 하나로써 정신적 원인으로 일어나는 병적인 흥분상태로써 신체의 운동(비, 실성(失性), 인체의 경련 등의 신체 증상이나, 건망(健忘) 등의 정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중에 신경증에는 히스테리와 강박증, 공포증으로 나누었으며 그 중의 하나가 히스테리다.

신경증자는 억압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억압된 것이 내부로부터 말실수, 실수행위, 증상의 형태로 되돌아오는 특성이 있다. 신경증에서의 근본적인 메카니즘은 억압이다.

정신병자가 일반인이 꺼리는 외설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억제한다. 신경증자는 억압을 통해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감춘다.

억압된 것은 감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감각이나 감정에 부착된 생각, 관념이라고 지적했다. 즉 무의식은 감정이 아닌 생각, 관념(이



김수범
우리한의원장

데아, 표상)들로 구성된다는 뜻이다. 생각, 관념들은 말이나 기표를 통해서만 표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과 생각은 처음에는 결합된 형태로 있지만 억압이 일어나면 서로 분리되어 생각이 의식으로부터 밀려나게 되고 감정만 남게 된다.

생각이 한번 억압되면 단순히 잠자는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다른 생각들과 관계를 맺고, 가능하면 꿈, 말실수, 증상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억압된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증상이나 말실수를 통해 되돌아오는 사실에 있다.

얼굴 경련과 같은 증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신분석에서 억압에 관해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

얼굴의 경련은 억압되어 버린 힘

오스런 생각이거나 더 많은 것을 보고자 하는 억압된 소망으로 부터 온 것일 수 있다. 증상은 곧 타자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다.

히스테리의 흔한 증세로는 경미한 통증, 가슴이 죄는 느낌, 편두통, 현기증, 추시고 육신거리는 느낌, 눈이 안 보인다거나, 말이 안 나오고, 귀가 안 들리는 것과 같은 마비 상태 등 다양한 신체언어로 표현된다.

히스테리환자에게 어떤 생각을 억압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것에 압도된 환자는 어떤 식으로든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생각을 망각하고도 감정이 그대로 잔존하는 그런 경우로서 히스테리 환자들에게 공통적이다. 이는 아버지의 발을 치료하던 중 치료를 위해 그 발이 기뻐던 부분으로 밝

혀졌다. 일반적으로 히스테리환자에게는 억압된 것이 신체의 증세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한 때, 특정한 물건이나 사건이 생기면 꼭 아픈 경우도 히스테리적인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 히스테리환자의 특징은 강박증자와는 다르게 대상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타자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스스로 타자의 욕망을 지속시킬 수 있는 특정한 대상이 되려고 한다.

또 히스테리환자는 성적 상대인 타자를 강조한다. 그녀는 타자의 욕망을 지배하기 위해 스스로 욕망의 대상이 된다.

환상을 통해 그녀는 자신을 타자의 대상으로 위치시키고, 타자는 욕망하는 주체로 자리 잡는다.

실제로 자신이 대상의 역할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타자의 욕망을 불만족한 상태로 유지한다.

타자를 불만족한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환자가 자신을 그의 욕망의 대상으로, 그에게 결여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불만족한 욕망"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설

진안군수 법정구속 유감

모든 선량은 양심을 지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선량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도내에 그 기본 상식을 무시하는 이들이 많아서 문제이다. 그들 때문에 전북 도민 전체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선량이 돼 가지고서 안 좋은 뉴스를 만들어 내는 게 무슨 유구한 전통이라도 되는지 도민들은 한심스러울 뿐이다.

도민들은 지난날 몇몇 인사에게 있었던 불행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 잇따른 구속과 사퇴는 도민들이 보기에 매우 속상하는 것이었다.

지금 또다시 이같은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지역 유권자 수백명에게 홍삼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로 실형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까닭이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 구속되는 일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공범 4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모든 선량들은 처음부터 행동이며 일처리를 조심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전북 만큼 선량들이

빈축 대상이 된 지역도 드물다. 민선 역사 내내 도지사 1명을 포함해 시장과 군수 등 18명이 구속되거나 사퇴라는 불명예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뇌물 수수가 발각된 후 8년 2개월 동안이나 도피행각을 벌였던 교육감의 사례도 있다. 선량이 돼 가지고서 안 좋은 뉴스를 만들어 내는 게 무슨 유구한 전통이라도 되는지 도민들은 한심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기초단체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당하고 있으니 너무 어이가 없다. 진안군 주민들은 개탄하며 혀를 차고 있을 터이다.

당연한 말을 하거니와 선량은 공인 중에서도 공인이다. 공인이 되려는 이들은 처음부터 정신과 마음이 맑아야 한다.

비위 사실 때문에 중도에 구속되거나 낙마하는 것은 뽀이준 주민들에게는 경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선량은 처음부터 공정하고 깨끗해야 한다. 선량의 자리는 높은 벼슬자리가 아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도 아니다. 돈을 버는 자리도 아니다. 이항로 진안 군수의 구속 사건은 진안군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녕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독자제언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전화금융사기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며 이러한 범죄수법도 다양화 되고 있다.

최근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기 전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에 대비해 "휴대전화 앱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접근하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로 IP주소 또는 인터넷주소를 알려주며 숫자로 된 앱(36.231.34.54)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발신하는 전화는 사기꾼에게 연결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며 그럴듯한 목소리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이같은 전화사기의 경우 일단 피해를 송금하면 30분내 출금돼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부분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 추적이 어려움이 크고 수사기간도 길

어지기 마련이다. 전화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 및 인터넷 포털에서 배포하는 스캠차단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고, 설치를 유도하는 앱은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112를 통해 피해금 입금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후 해당 금융기관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한다.

경찰청은 전화사기 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간편하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 악성코드 차단, IP주소 표시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다.

전화사기 또는 인터넷사기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면 국번없이 182 또는 112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

김병섭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사위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크로아티아 카트 레이스 "바람보다 빠르게"



17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폴라에서 축제 퍼레이드가 열려 참가자들이 타이어가 아닌 불베어링을 이용해 손수 만든 카트로 레이스(go-kart race)를 펼치고 있다.

벤처기업들의 형편이 또다시 궁핍하다

벤처기업들의 형편이 궁핍하다. 지역 경제가 가파르거나 어려운데 벤처기업들 쪽에서 힘들다고 호소할 때면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알량한 일자리마저 줄고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여기 또다시 짊어보고 싶은 게 있다. 도내 기업 생존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의 형편은 어떤지 궁금하다. 최저 임금제 실시 이후 아파트 경비원이며 마트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지금이다.

전북도에게 다시 묻거니와 벤처기업들의 형편이 궁핍하다.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나아지지 않았을 거라는 짐작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팩트대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 힘을 실어서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바람에서이다. 전북도는 현안들을 넓게 챙기는 가운데 벤처기업들 관심을 두어야 한다.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 통계 보고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다. 전북도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를 열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벤처기업들 쪽에서 밝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흐름이 어려울수록 어려운 기업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늘 그랬거니와 돈이 돌지 않는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 벤처 투자 시장 규모가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데도 전북의 현실은 그게 아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투자 비중은 1%에 불과하다니 말도 안 된다.

전북도는 도내 벤처기업들을 도와야 한다. 벤처기업들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동안 역할이 컸다. 전북도는 도내의 여러 벤처기업들이 애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기업들의 생존률을 저조한 것을 두고 생각이 많아져야겠다. 벤처기업들이 재류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 전북도는 인센티브 차원을 넘어 실제로 벤처기업 고통을 생각할 때 정녕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